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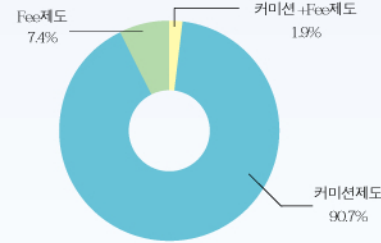
광고주간이 설문

광고회사 보상제도 현황과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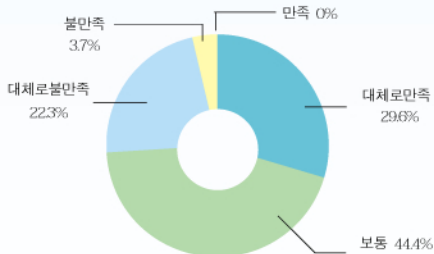
한국광고주협회는 광고회사 보상제도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광고주들 대상으로 간이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최근 다양한 미디어의 출연으로 IMC에 대한 광고주의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고회사의 주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알아보았다. 지난 7월 5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광고주협회 200여 회원사를 비롯한 KADO 4대매체 광고비 집계기준 300대 광고주들 설문대상으로 하였고, 응답한 광고주는 총 64개사였다.

먼저 광고회사의 보상제도를 묻는 질문에는 커미션제도(Commission System:수수료제)라고 응답한 광고주가 90.7%로 아직까지 글로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광고주가 커미션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그러나 국내기업 가운데 작년보다 Fee제도(Fee System:약정요금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는 광고주도 있었다. 또 Fee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가하는 질문에는 22.2%의 광고주가 그렇다고 대답했다<표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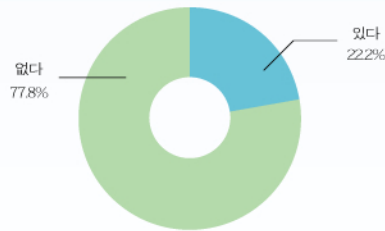
<표 1> 광고회사 보상제도



<표 2> 광고회사 보상제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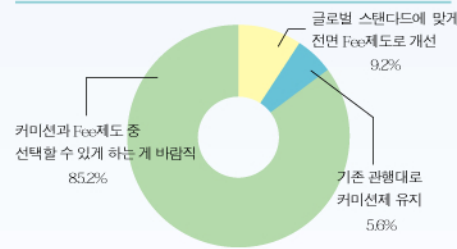
<표 3> Fee제도 도입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가



미디어랩법 제정시 수수료를 법제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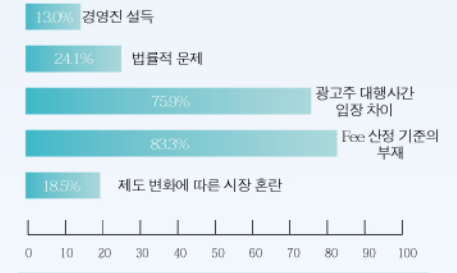
광고주가 보상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과거 한국방송광고공사법(KOBACO법) 아래서 20년이 넘도록 약 14%의 수수료를 너무도 당연한 듯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는데 또 다시 개정 미디어랩법에서 이를 법제화해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수수료를 적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학자들 비롯한 광고회사들은 수수료를 현행 10.8%에서 15%로 올리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수료율의 하한선을 11%로 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좀처럼 없애기 힘든 사실을 우리는 KOBACO법을 통해 이미 경험했다. 광고계는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KOBACO법의 부당함을 주장해왔으나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서야 위헌 결정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표 4> 광고회사 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한가



광고회사 보상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커미션과 Fee제도 중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표 4> 참조. 법정 수수료율을 강제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제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인하우스 에이전시와 거래하며 Fee제도의 도입을 전혀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광고주의 대부분도 보상제도는 커미션과 Fee제도 중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대답했다. 보상제도

<표 5> Fee제도 도입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복수응답)



를 바꾸든 안 바꾸든 새로운 제도의 길은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Fee제도 도입의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법률적 문제나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기 보다는 광고주와 광고회사간 입장 차이와 Fee 산정 기준의 부재를 꼽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표 5> 참조. 실제로 Fee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한 광고주는 "KOBACO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없을 것 같다. 시장 혼란 역시 처음에는 어느 정도 혼란이 있겠지만 시장 내에서 조정되고 정착될 것이다. 제일 큰 걸림돌은 광고회사와의 입장 차이다. Fee제도로 바뀌게 되면 어차피 광고주와 광고회사간 합의를 통해서 Fee가 조정될 텐데, 광고회사는 Fee제도로 바꾸면 무조건 수입이 줄어들고 광고회사는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Fee제도는 광고주가 매체집행을 안 해도 계약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장치란 인식을 광고회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광고주 광고회사간 신뢰 구축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한편 Fee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도 풀어야할 시급한 과제다. Fee제도의 전환을 놓고 광고회사와의 협의 과정 끝에 결국 원점으로 되돌리고 말았다는 한 광고주는 "우리 실정에 맞는 Fee 산